

4가지 주제로 바라본 우리 민속의 속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조사 보고서 4권 발간

복식·의식에서의 상장례 현대화 이야기부터 월출산 인근 전통 제다민속 역사적 배경까지

상주의 검은색 양복과 조문객에게 대접하는 육개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반티지와 레트로의 시대, 수리와 복원 기술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우리나라 차문화 역사는 어떤가. 미역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국립민속박물관이 다양한 민속 연구자료 구축을 위한 권역별 자유주제 민속조사 보고서 4권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연구자 6명이 1년여간 현장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만 일상성으로 인해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를 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연구자들이 현장에 머물면서 민속문화의 본모습을 탐구하고 오늘날에 이르는 변화와 전승 과정까지 살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지닌다.

1. 먼저 강정원·남궁민의 '수도권 상장례의 현대화와 복식·음식 민속지'다. 해당 보고서는 물질민속문화로서 상장례의 복식과 음식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서는 시대별 법령과 예서를 분석해 옛 상장례 절차와 간소화된 현대의 상장례 절차를 비교했다. 또 가정의례준칙과 장례식장, 상조회사의 등장 이후 급격히 변화된 상장례 복식과 음식을 변화의 양상이 크게 드러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시대별 상장례 복식과 음식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여 오늘날 표준화된 상장례의 복과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은 전미영 연구자의 '고치는 사람들의 기술과 근현대 소장품의 복원' 보고서다. 오래 쓸 수 있지만 망가지기 쉬운 가구·신발·악기를 고치는 사람들 이야기와 기계, 전기·전자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물이 고장 났을 때 이를 복원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장의 원인을 파악 하



떡차 제다. 떡차를 만들기 위해 훈증 방식으로 살청(殺靑)하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고 복원하는 기술의 반복적 활용으로 수리 지식과 기능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생겨났던 가구거리, 악기 상가와 구두 골목의 자취도 돌아왔다. 반티지와 레트로 시대, 사물의 수리와 복원이 현대적 기술과 결합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음을 조명한다.

3. 세 번째 보고서는 최원오·이현정의 '월출산 주변 전통 제다민속의 역사성'이다. 우리나라 차문화는 삼국시대부터 1천300년여간 이어져 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 상표로 알려진 백운옥판차(白雲玉版茶)에 주목한다. 우리 차문화와 고유한 정신이 유린당할 위기에 놓였던 일제강점기에도 이현영(1888-1956)은 백운옥판차를 만들어 우리 차문화를 계승하고 차 재배와 제다법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 제다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차 재배 자연 환경을 살펴보고 백운옥판차의 특징과 전승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조선시대 차문화의 흐름과 강진으로 유배됐던 정약용과 교류했던 이현영가(家)와 월남마을 차 재배를 바탕으로 차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함께 설명했다.

4. 마지막으로 황경숙 연구자의 '부산 동남해역 미역마을의 떡차 제취와 민속문화'다. 기장미역은 쫄깃한 맛과 특유의 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기장미역을 채취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어로문화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사자는 미역마을 사람들과 매일 같이하며 미역 채취 속삭과 일상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일상을 바탕으로 어로문화의 변화, 전승 과정과 지역적 특징을 살폈다. 풍어제와 같은 의례와 미역채취 속신, 미역채취 노동요 같은 구비문학은 물론 미역마을 사람들이 즐겨먹는 독특한 음식문화까지 다양한 민속문화를 함께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원문을 내려받아 읽어볼 수 있다.

새로 나온 책



▲세뇌의 역사=조엘 뎀스데일 지음, 임종기 옮김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지은이는 중세시대 종교재판부터 과학적 실험을 통해 행동을 조건화하려 했던 파블로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유령처럼 놀라다녔던 세뇌의 역사를 추적한다. 이단을 극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포로와 범죄자들에게서 정보와 비밀을 캐내기 위해, 때로는 신봉종교의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된 강압적 설득의 기술을 세상을 뒤흔들었던 굽적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친다. /에이코스·2만5천원



▲오늘의 할 일=김동수 지자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김동수의 신작 '오늘의 할 일'이 출간됐다. 어린이의 내면 세계를 담은 순수한 상상으로 사랑받는 김동수 작가가 창작그림책으로는 8년 만에 펴내는 신작이다. 어느 날 물귀신 세계에 초대받은 어린이의 하루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묵묵히 자정작용하는 자연을 물귀신으로 상징해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임정을 명랑하게 풀어낸다. 발랄한 상상, 힘 있는 주제 의식, 흡인력 있는 모험 이야기가 독자를 처음 만나는 세계에 몰입하게 한다. /창비·1만6천원



▲헬로 뷰티풀=앤 나폴리타노 지음, 허진 옮김

가족을 둘러싼 30년 간의 사랑과 슬픔, 관용과 화해를 그린 이 소설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또한 온전한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다. 앤 나폴리타노는 끈끈한 관계에 갇힌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삶의 어찌할 수 없는 비애를 부드럽게 직시하면서 인물들 하나하나의 운명에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 악인도 영웅도 등장하지 않고 자극적인 사건이나 반전도 없지만 각자 운명을 헤쳐나가는 인물들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벅찬 감동으로 마지막 장을 덮게 될 것이다. /북복서자·1만8천500원



▲즐거운 어른=이옥선 지자

76세 이옥선은 우리에게 익숙한 할머니의 이미지에서는 사투 벗어나 있다. 이옥선 작가의 딸이자 '여독'의 팟캐스터인 김하나 작가는 이 책을 추천하며 '까칠한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의 까칠함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꽃꽂이 경계와 기준을 세워둔 자의 도통 무뎠지 않은 감각을 의미할 것이다. 뾰족하게 살아 있는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까칠한 태도는 마치 때밀이 수건처럼 세상에 짓눌려 있던 우리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준다. 이 까칠함은 부당하고 낡은 세상의 관습을 마주할 때 무엇 하나 그러려니 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삶의 태도를 찾아내려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야기장수·1만6천800원

국내 최장수 문학 동인 원탁시회 '원탁시' 69호 발행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조수일 작품 조명 등

전국 최장수 시(詩) 동인이자 광주 대표 문학 모임 원탁시회의 '원탁시' 69호(시와사 람)가 발행됐다.

이번 호 기획특집으로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제28회 한국해양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내 카시오페아 철갑상어에 불박여'로 대상을 수상한 조수일 회원의 작품을 집중 조명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출신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평론가 강나루 씨가 '잠'을 주제로 한 동인들의 주제시 비평 글을 함께 담았다.

또한 '원탁시회' 발기인으로 원탁시 초창기부터 활발히 활동한 고 범대순 시인 서거 10주기에 맞춰 김영삼 전남대 국문과 교수의 '불타는 무등산과 죽음에 이르는 산행' 시론을 실었다.



이밖에도 회원 19명의 신작과 강대순 시인의 시집 '별들은 감나무에 오종종', 조세핀 시인의 시집 '에스메랄다와 춤'에 대한 유성호·김춘식 평론가의 작품론도 살펴볼 수 있다. 1967년 5월 1일 '원탁시' 창간호를 시작으로



올해 58주년을 맞는 원탁시회는 범대순·윤삼하·정형웅·박홍원·문병관·구창완·손광은·김현곤·송선영·황규원 시인 등이 함께 한 단체다. 원탁 창간호는 '원탁문학'이라는 표제 아래 팜플릿 형식으로 발간됐으며, 당시 '현대문학' 등 문예지에 소개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 '원탁시회'는 서승현 시인이 회장을 맡은 가운데 21명의 회원이 광주 문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풍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